

## 화이부동, 동이불화(和而不同, 同而不和)

Sound of Different Drums

공자(孔子)의 글이라던가? 어디선가 이 글귀를 보고 감탄한 적이 있었다. 원전의 뜻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시각적인 형태와 어울림이라는 화두(話頭)로 다가왔다. 같은 모양을 띠다고 어울리는 것일까? 오히려 서로 다른 형상을 지닌 사물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듯하다. 공자가 벌떡 일어나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고 야단치실지도(?) 모르겠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면, 감탄과 한탄이 엇갈리며 나온다. 둘러싼 산, 한강, 청계천, 조선왕조의 흔적들,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모르기는 해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이만한 도시는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군사정권을 거치며 군더더기 같은 건물이 들어선다. 그나마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일부 건물들은 음미할만한 것 아닌가? 해방 후 지어진 건물들은 무어라 설명해야 할 것인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어떤가? 에펠탑이 보기 싫어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에펠탑 속의 카페에 들어앉아 있었다는 '모파상' 처럼 숨어들어갈 곳도 없다.

쿠알라룸푸르에서 현대적 감각이 묻어나오는 모스크(寺院)에 방문하게 되었다. 느림하게(?) 사진을 찍으며 종교적 깊이를 들이키고 있는데, 후배 목사가 "형님, 카메라를 어떻게 갖고 들어오셨습니까?", "응? 아아... 알라 마하벳살... 알라신은 위대하시다. 기도도 안했나?" 말레이시아항공의 비행기 안에서 외워두었던 기도문에 나오는 글귀였다. 내 몸에서 그들을 존중하는 냄새(香)가 나는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고, 찍을 수도 있었다. 아쉬운 것은 그 사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사진은 잃어버렸으나, 분위기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똑같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 너무나 당연한 행정지도, 하지만 똑같은 디자인, 아니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몰골사나운 건물에 익숙한 우리에게만 한 이야기였다. 왜 그런지 경직되었을 것만 같은 모스크에서도 유연한 분위기가 품겨 나온다.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아우러진 자태를 은은하게 드러낸다.

한강변에 죽 늘어선 아무런 개성도 없이 봉어뺨처럼 찍어낸 아파트를 무어라 설명할 것인가? 수용인원(?)만 따진 덩치만 큰 교회 건물, 광화문 한복판에 얹어놓은 컨테이너 창고 같은 정부종합청사. 페인트칠 색깔만 다른 농촌의 새마을 주택들. 하기가 이것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가와 행정가의 수준이기는 하겠다.

건축은 독특한 예술행위다. 건축사와 건물주 그리고 행정당국의 합작품이다. 건축 가능하도록 하는 시공기술이라는 요소도 있겠다. 영화처럼 종합예술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다. 건물은 몇 백 년을 이어가며 숨쉬며 살아간다. 건축시공과 무관

한 이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용하며 즐긴다. 그래서 나 같은 건축의 문외한도 소비자라는 전문가가 되어 소극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꽤 막힌 기독교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멋진 가람(伽藍)에, 절에 다녀보지 못했었다.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좀 편찮다 싶으면 절이 자리 잡고 있다. 주변 경관과 더불어 절 집이 내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왔다. 교회와는 너무나 달랐다. 우뚝 서서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눈초리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다. '어울림'이라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지붕선과 주변의 스카이라인(skyline)이 너무나 멋지게 어울린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어울리는 시공간(時空間)이다. 시간이라는 요소마저 안고 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기에 수 백 년이 지난 오늘에도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것 아닐까?

단청(丹靑)은 어떤가?

그야말로 촌스럽기 그지없는 배색(配色)이다. 그 뒤에 감추어진 음양오행설의 배경을 몰라도 좋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등등 은은한 톤도 아닌 원색 그대로다. 그런데 강렬한 원색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깊이감(深度)'을 더한다.

베트남의 후에(Hue)라는 고도(古都)를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더위와 습기에 단청이 견디지 못하니 지붕 위에 도자기를 구워 올려놓았다. 이 독특한 용두가 눈에 들어온다. 흰색 바탕에 연한 색을 넣어 구워낸 것이다. 분명 아름다우나,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까, 자연의 풍화작용이라고 할까 절대자의 손길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모든 건축물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깊이를 더해가나, 사기질로 구워진 부분만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당당하기만(?) 하다. 그러기에 부드러운 파스텔 톤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네 단청을 조금 더 드러다 보면 더 놀라게 된다. 그려진 그림에 또 다른 신앙(哲學)이 담겨있는 듯하다. 얼핏 보면 똑같은 무늬 같은데, 찬찬히 살피면 다양한 무늬가 무엇인가 속삭이듯 자리 잡고 있다. 그려진 연꽃의 꽃잎이 4개, 5개, 6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도 하나하나 다른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절로 감탄이 나온다. '곱하기 몇' 대량생산이라도 하듯 찍어낸 느낌의 이슬람의 모자이크나 팝 아트(pop art)와는 다른 깊은 맛이 보인다.

이런저런 생명체를 형상화시켜놓아 자연의 다양성이 녹아들어있다. 하나의 신앙 속에 녹아 든 다양한 생명체, 대중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 어울림은 그래서 하나가 되고, 국가종교로까지 승화된 신앙이면서도 너도나도 하나가 되라고, 하나의 틀에 들어가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처마 밑의 그림은 어떤가?

아름다운 전시 환경에 적절한 조명을 받으며 멋진 자태를 뽐내는 작품이 아니다. 수줍은 듯 가려져 있다. 구석구석 경외심을 갖고 둘러보며 음미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다. 이름 없는 산사(山寺)에도, 아니 오히려 그런 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 대웅전 처마 밑에서 들어나지 않는 여인의 속살처럼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다.

도시, 도시의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적 합의의 유산임이 틀림이 없다. '집짓기'마저도 하나의 트렌드인가? 천박한(?)유행 따라 너도나도 따라하기에는 쏟아 붓는 노력이 너무나 아깝다. 건축주를 설득하고, 행정당국과 협의하고, 시공자와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며, 적어도 100년은 내다보는 비전(vision)이 만져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경제, 숫자 놀음이 중요하다 해도 '평당 얼마'는 아니다. 벽돌 값, 노임은 쳐주면서도 건축사의 작품료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를 개탄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니체'가 말했다던가? 건축가와 의사는 대조적인 직업이라고. 의사를 찾아온 환자는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해도 얼굴을 찡그리고, 건축사를 찾아온 손님은 그 누가 되었던 꿈에 부풀어 온다고. 그 꿈을 먼 미래까지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남들이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것은 아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일거리 떨어져 밥 굶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혼자만이라도-남은 알아주지 않아도-예술가의 긍지를 지니며, 삭막한 도시에 흔(魂)을 불어넣어주면 어떨까? 남들은 '쟁이'라 해도 나만은 외로운 작가라고 하면 어떨까?

철 이른 봄꽃 한 송이가 외롭게 피면 어느 새 봄이 가득하다. 두고두고 살고 싶은 집 하나가 들어서면, 어느 사이엔가 멋진 집으로 이 도시가 채워지지 않을까? ㉮